

신부의 아름다움

11/03 월요일

아침의 누림엡 5:25-27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살전 4:3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고,

살전 5:23-24

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24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벧전 1:15-16

15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16 그것은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엡 1:4-5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 장 25 절부터 27 절까지는 사실상 하나의 긴 문장이다. 이 절들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하시어,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은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거룩하게 함은 깨끗하게 함에 의해 이루어지고, 깨끗하게 함은 씻음에 의해 이루어지며, 씻음은 물로 이루어지고, 물은 말씀 안에 있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4, 276-27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과거에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생명을 분배하시려고(요 19:34),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현재에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분별시키시고 적시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건축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 장래에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배필인 교회를 자신 앞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를 분별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분께서 교회를 분별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교회를 그분 자신 앞에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주님의 찢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었고, 물은 교회가

존재하게 되도록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에베소서 5 장 25 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써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 나온다.

교회가 존재하게 된 후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심이 필요하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적셔짐과 변화와 성장과 건축을 포함한다. ...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 존재로 적셔질 필요가 있다. 적셔짐은 변화와 성장과 건축을 수반한다. 교회는 이 모든 방면을 포함한 그러한 거룩하게 됨의 과정을 통해 완전하고 온전하게 된다. 즉 창세기 2 장의 하와로 예표된 것의 실재가 된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건축됨으로써 아담을 위해 준비된 후에, 그녀가 나온 근원인 아담 앞에 세워졌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 근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워질 것이다. ... 에베소서 5 장 27 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분은 세우시는 분이시며, 또한 받으시는 분이시다.

분별과 적셔짐과 변화와 성장과 건축이 없다면, 교회는 온전하게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총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랄 수 없다. 교회는 오직 거룩하게 됨이라는 모든 것을 포함한 과정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총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를 수 있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된 교회를 자신 앞에 세우실 수 있다.

우선 교회가 존재하게 된다. 그다음 교회는 거룩하게 됨으로써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이다. 현재 우리는 교회 산출의 둘째 단계, 즉 거룩하게 됨의 단계에 있다. 이 단계가 완성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변화는 보양하는 것과 보살피는 것을 통해 온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집회에 참석하여 보양받고 보살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분별되고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적셔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장과 변화와 건축이 있을 것이다. ... 결국에는 신부가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준비된 신부를 그분 자신 앞에 세우실 것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4, 277-28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3

11/04 화요일

아침의 누림

사 28:5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분 백성 중 남은 이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왕관이 되어 주시며

사 43:7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들을 내가 창조하고 지었으며 심지어 내 영광을 위해 만든 이들을.

시 27: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롬 6:19, 22

19 여러분의 육체가 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게 노예로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노예로 드려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22**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엡 3: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 60:1, 7, 9, 13, 19

1 일어나라! 빛 비추어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로 솟아올랐음이라.

7 “게달의 양 떼가 너에게로 모여들고 느바뿔의 숫양이 너를 섬기리니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올려져 기쁘게 받아들여지며 나는 내 아름다운 집을 더 아름답게 하리라.

9 참으로 해안 지역들이 간절히 나를 바라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서 너의 자녀들을 데려오고 그들의 은금도 함께 가져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바치리니, 그가 너를 아름답게 한 까닭이라.

13 레바논의 영광 곧 전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성소의 터를 아름답게 하고 나는 내 발 돌 곳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19 낮에 너를 비출 해가 더 이상 없고 너를 비출 달도 없을 것이나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름다움이 되리라.

사 62:3 또한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네 하나님 손바닥에 놓인 왕의 두건이 되리라.

이사야서 28 장 5 절에서 그리스도는 영광의 면류관(crown)과 아름다운 왕관(diadem)으로 계시되신다. 우리는 면류관과 왕관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두 항목은 5 절에서 동격 관계가 아니다.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왕관 사이에는 접속사 ‘과(and)’가 있다.

이사야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 문장을 썼다. 면류관은 모자나 두건과 같고, 왕관은 그 면류관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분인 머리띠이다. 일반적으로 면류관은 영광을 의미하지만, 그것의 아름다움은 장식과 보석들로 가득한 왕관에 있다. 왕관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아름다움이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모두 끝난 후인 복원의 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남아 있는 이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영광과 아름다움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어떤 것은 아주 영광스럽지만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선민에게 영광과 아름다움 모두가 되실 것이다.(이사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3, 34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은혜 시대가 오는 복원의 시대의 축소판이자 미리 맛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과 왕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미리 맛봄을 누린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을 영광스럽게 느끼지 않는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사건에 관하여 말할 때는 영광스러워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면류관과 왕관, 즉 우리의 영광과 아름다움이심을 떠올려야 한다.

나는 오십여 년 전에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체험했는데, 그때 중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나는 일본군에 의해 투옥되었다. 한 면에서 그들은 나를 모욕하고 심문하고 고문하였지만, 또

한 면에서는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1:20). 바울은 그리스도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 심지어 가이사라 집안에 속한 사람들 중 몇몇이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 되었다(빌 4:22). 체험에서 바울은 면류관과 왕관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마땅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영광스럽다고 느껴야 한다. 패배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겠지만, 우리가 새롭게 회개하고 분배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광스럽다고 느낄 것이다. (이사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3, 346-347 쪽)

점과 주름은 교회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아주 심하게 훼손한다. 어떤 남자가 신부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먼저는 능력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역시 마땅히 아름다워야 한다. ... 우리가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생각의 영을 따르는 뛰어난 일상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점과 주름 때문에 주님의 눈에 아름답지 못할 수 있다. 바울은 에베소서 1 장부터 4 장까지에서 교회에 대해 것처럼 많이 말한 후에, 5 장에서 신부인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 장에서 그는 교회의 창조나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보다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때 교회는 강한 사람이 아닌 아름다운 신부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남자이시다. 우주적인 남자이신 이분께서는 교회가 그분과 어울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 필요하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아름다워야 하며 또한

모든 점과 주름이 제거되어야 한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95, 35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이사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3;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그룹, 8 장

11/05 수요일

아침의 누림

엘 5: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엘 6: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겹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계 19: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계 21: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마 4: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13:14-15

14 또한 이사야의 선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15 이 백성의 마음은 굳어지고 귀는 듣는 데 둔하여지고 눈은 감아 버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사 6:9-10

9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잘 들어라. 그러나 알지는 마라. 잘 보아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알고 돌아와 고침을 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요한계시록 19 장은 장차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오늘날 성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국가에 되돌려졌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그리 머지않았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신부는 서둘러 준비될 수 없다. 이런 준비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확실히 주님은 그분의 신부를 준비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심이 틀림없다. ... 그분은 이미 준비된 신부를 자기 앞에 세우시려고 오실 것이다. 내가 믿기로, 이 준비는 단체적인 건축의 일을 포함한다. 신부를 구성할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이 성숙해야 할 뿐 아니라 한 신부로 함께 건축되어야 한다.

회복 안에서의 일은 주님께서 참으로 그분의 신부를 준비하시기 위해 하고 계신 일이다. ...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주된 일은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95, 358-35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5 장 26 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은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주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후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를 씻겨 주는 말씀이다. 에베소서 5 장 26 절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logos)'가 아니라,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즉각적인 말씀인 '레마(rhema)'이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그분을 인격으로 취한다면, 여러분은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알 수 있다.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 돌이켜서 진정으로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한다면, 그분의 말씀하심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 분의 말씀하심은 살아 있는 말씀이고, 살아 있는 말씀은 그 영이며, 그 영은 우리의 놀라우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분은 얼마나 실지적이시고 주관적이시며 친근하시고 참되신가!

이 영은 우리를 씻는 물이시다. ...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함을 체험할 것이다.

이 깨끗하게 함은 낡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신진대사적인 깨끗하게 함이다. ...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내적이고 신진대사적인 깨끗하게 함에 의한 것이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에서 비롯되는

신진대사적인 깨끗하게 함에 의해 우리는 참으로 바뀌고 변화된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그런 다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매우 실지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는 그분의 말씀하심과 하나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의 말씀하심은 우리의 내적 존재를 깨끗하게 하 물이다. 이 깨끗하게 하는 물은 새로운 요소를 우리 안으로 넣어 우리의 본성과 기질 속에 있는 낡은 요소를 대체하게 한다. 이 신진대사적인 깨끗하게 함은 생활의 참된 전환을 가져온다. 이러한 전환이 바로 우리가 의미하는 '변화'이다. ...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데서 오는 내적이고 신진대사적인 깨끗하게 함이다.

생명 주시는 영은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은 그 영이며, 그것은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의 임재이다. 우리가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한다면, 그 영의 말씀하심은 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요소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공급을 줄 것이다. 이 요소는 우리의 옛 요소를 대체하고 제거하여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며, 또한 교회생활의 실지적인 방면을 체험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5, 290-29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5-56

11/06 목요일아침의 누림요 7:37-39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계 7:17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 21:6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계 22:1, 17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출 17:6 이제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고전 10:4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에베소서 5 장 26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시어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한다. 신성한 관념에 따르면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흐르는 물로 예표되었다 (요 7:38-39, 계 21:6, 22:1, 17). 여기에서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씻는 것과 다르다. 구속하는 피는 우리의 죄들을 씻어 내지만(요일 1:7, 계 7:14), 생명의 물은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엡 5:27)인 우리 옛사람의 타고난 생명의 흠들을 씻어 낸다. 주님께서 교회를 분별시키시어 거룩하게 하실 때, 먼저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으시고(히 13:12), 그다음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타고난 흠들을 씻겨 내신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씻는 과정 안에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4, 28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깨끗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생명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5 장 26 절에 있는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즉각적인 말씀을 의미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항상 즉각적이고 현재적이며 살아 있는 말씀을 하시어, 신진대사적으로 낡은 것을 씻겨 내시고,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치하시며,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 이것은 말씀 안에 생명의 물이 있음을 가리킨다. 이 생명의 물은 제단과 회막 사이에 놓여 있는 물두멍으로 예표된다(출 38:8, 40:7). 에베소서 5 장 26 절에서 '씻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물두멍'을 의미한다. <칠십인역

성경(Septuagint)>은 '물두멍'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를 이 헬라어 단어로 번역하였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 물두멍을 사용했다(출 30:18-21). 이제 이 물두멍은 씻는 물로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낸다.

매우 실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두멍이다. 구약에 따르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번제단 위의 피로 자신의 죄들을 처리해야 했으며,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자신의 더러움을 처리해야 했다. 나는 에베소서 5 장 26 절에서 바울에게, 교회가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깨끗하게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참된 물두멍이 있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정판, 2 권, 메시지 54, 281-282 쪽)

신약에는 '말씀'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있다. 하나는 '로고스(logos)'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말이다. 또 하나는 '레마(rhema)'인데, 성경에는 동일하게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로고스'와는 사뭇 다른 의미이다. '로고스'는 영원토록 정해진 것, 그리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용된 것을 가리킨다. ... 그러나 '레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리킨다. ... '로고스'와 '레마'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전자는 성경 안에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후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레마'는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레마'는 우리가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깨끗이 씻어 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 문제를 추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로 이 '레마'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였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는가? ...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가이다.

참된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 '레마'를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망하신다. ... 우리가 주님의 손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빛 비춤 받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자라게 된다. ... 우리에게 '레마' 곧 하나님께서 하신 살아 있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4 권, 영광스러운 교회, 3 장, 80-81, 83, 89-9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4, 57, 59;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4 권, 영광스러운 교회, 3 장

11/07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계 19:8-9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9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시 50:2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은 빛나신다네.

고후 3:15-18

15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울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사 33:17 네 눈은 아름다움을 지닌 왕을 보게 되며 그들은 아주 머나먼 땅을 주목하게 되리라.

사 45:11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장차 내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만든 것들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여라.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그분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 그분께서 자기 앞에 신부를 세우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에게서 오직 아름다움만을 보실 것이다. 이 아름다움은 그분의 존재가 반사된 것일 것이다. ... 신부의 아름다움은 ...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지시고 그런 다음 교회를 통해 표현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빛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귀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분 자신이 표현되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95, 355-35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먼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며, 그런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동화되셔야 한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빛나실 수 있다. 이런 빛남은 신부의 영광이자 인성을 통한 신성의 나타남이다. 참된 아름다움은 인성을 통해 신성한 속성들이 표현되는 것이다. 우주 안의 어떤 것도 이 표현만큼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므로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빛나시는 것이다. 그것은 신성이 인성을 통해 표현되는 문제이다.

결혼식 날 신랑은 신부의 능력보다 아름다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마찬가지로, 교회생활 안에서 결국 우리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기능보다 주님께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교회생활의 시작에 우리는 능력이나 기능을 강조할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아름다움을 더 강조할 것이다. ... 기능에 있어서 능력을 갖추고 자격을 구비하고 은사를 얻는 것에 그리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처음에는 이것이 교회생활 안에서 다소 중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그분께서 주의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보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인성을 통해 표현되는 그분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의하신다.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의도가 없으시다. 그분 앞에 세워질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이며,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교회일 것이다. 우리의 흠과 불완전함이 제거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기능을 위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소화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동화함으로써 아름답게 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그분은 우리의 점과 주름을 그분의 요소로 더욱 대치하실 것이며,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풍성이 더욱 우리의 아름다움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로서 그분 앞에 세워질 준비가 될 것이다.

에베소서 5 장의 체험은 요한계시록 19 장의 성취를 위해 필수적이다. 에베소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이 하시고 보양하고 보살펴 주시으로써 신부로 준비시키시는지를 보여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어, 요한계시록 19 장에 따라 그리스도 앞에 세워질 준비가 된다.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계 19:8)을 입었기 때문에,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선포가 있을 수 있다 (7 절). 이것은 요한계시록 19 장의 때가 되면 신부가 준비되어 있을 것임을 가리킨다. 신부가 준비된다는 것은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깨끗한’은 본성을 가리키고, ‘빛나고’는 표현을 가리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이다. ... 여기의 신부의 의는 주관적인 의(빌 3:9), 즉 우리 존재 안에 조성된 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주관적인 의가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질수록 교회는 더욱 신부가 되도록 준비된다. 신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구속받고 거듭났다. 그러나 그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갖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의가 바로 그들의 존재 안에 짜이게 해야 한다. 사실상 바로 이 세마포 옷이 신부의 아름다움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95, 356-35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95, 2 권, 메시지 58

11/08 토요일

아침의 누림

아 4:7, 10-12, 15-16

7 “내 사랑이여, 그대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대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다오.

10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그대의 관유 향기는 온갖 향료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11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그대의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오.

12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덮인
우물, 봉해진 샘.

15 그대는 동산들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라오.”

16 “북풍아, 깨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그 향기를 날려 내 사랑하는 이가
그이 동산에 와 그이의 가장 좋은 열매를 드시게
하여라.”

아 6:3-4, 13

3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인답니다.”

4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한다오.

13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미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술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

아 8:13-14

13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14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계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사랑스러우신 분의 연인은 벗들이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 자신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달라고, 그분의 동산들인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 요청한다(아 8:13). 이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연인들인 우리가 사랑스러우신 분, 곧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내적으로 거하시는
그분을 위해 일할 때, 그분의 말씀하심 안에서
그분과 교통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분과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 귀 기울이며
그분과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랑스러우신 분의 연인은 그분께 부활 능력
안에서 속히 오셔서(아 8:14) 온 땅을 가득
채울(계 11:15, 단 2:35)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을 세우시기를 기도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스러우신 분의 연인의 이 기도가 이
시적인 책의 결론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기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연인
사이의 혼인의 사랑 안에서의 연결과 교감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연인인
요한의 기도가 성경의 결론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사랑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계시해 주는 것과
같다(계 22:20).(아가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76-77 쪽)

오늘의 위를 말씀

아가 8 장 13 절에서 ... ‘당신’은 주님을
가리킨다. ‘동산들’은 복수이다. 그분은 그 여인의
동산에 거하고 계실 뿐 아니라(아 6:2) 또한 다른
많은 동산에도 거하고 계신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의 마음에 거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도 거하고 계신다. 그 여인은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그분께 말씀드린다. 그녀는 그분께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아
8:13)라고 말씀드린다. ‘귀 기울이다’라는 말은
모두가 귀 기울여 듣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녀와
더불어 주님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 그들은 이미
처리를 거쳤고, 말하는 것의 무익함과 귀 기울여
듣는 것의 유익함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 무엇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들으려면 더디게 말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더 이상 단지 말하고 싶어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찮은 것들에 관하여
말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 안에서는 땅에 속한
생명이 여전히 왕 노릇 하고 있지만, 추구하는
이들은 귀 기울여 듣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듣는 이의 태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이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그들의 일이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오직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계시나 빛이나
인식도 얻지 못할 것이다. 믿는 이들의 생활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에 달려 있다.

“오, 주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자 기다릴
때에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찾는
사람이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린다면,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한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시체와 같습니다. ... 부디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직 당신의 음성만이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그 여인은 이미 그녀에게 필요한 공과를 배웠다. 따라서 그 여인은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와 같은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아가 8 장 14 절은 주님의 오심과 그분의 왕국의 상황에 대해 말한다. 그때가 오면 세상은 수려하게 되어 마치 향기 그득한 산들과 같을 것이다. 그때 이 여인의 체험은 바닷속으로 이미 사라진 한 방울의 물과 같을 것이다. 비록 바닷물은 언제나 더 깊이 흐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갈 곳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그녀의 몸뿐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이미 다른 세상으로 옮겨 갔다. 그러므로 그녀는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십시오.” 그리고 “향기 그득한 산들 위에 있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왕국 가운데 오십시오.” 라고 부르짖는다. 그 사랑은 온전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 그분께서 오실 때 믿음은 사실로 변하고 찬양은 기도를 대신할 것이다. 사랑은 그들이 전혀 없는 온전함으로 완결될 것이고, 우리는 죄 없는 영역에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그 날은 얼마나 놀랍겠는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 권, 노래 중의 노래, 6 단락, 171-17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아가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 권, 노래
중의 노래, 6 단락

11/09 주일

아침의 누림

눅 10:38-42

38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는데,

39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40 마르다는 시종드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41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42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고후 5:14-15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11: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단 2:35 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거갈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